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7 충현청지기 훈련 실시

일꾼 전체모임 1월 29,30일

위원회별 모임은 따로 위원회 자체에서

본 교회 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 원에서는 '97 충현청지기훈련을 1월 29일(수)과 30일(목)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97년 한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힘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헌신된 충현의 청지기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재무장함으로써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금번 청지기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자!' '충성과 헌신을 실천하자!' '기쁨과 감사로 하나되자!'라는 목표 아래 본교회 본당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주제 성구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니한가 보라'(눅 11:35)이며, 주제 찬송은 519장(십자가를 질 수 있나)이다.

훈련대상은 제직 전원(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과 권찰, 각부서 봉사자(각 교구일꾼, 교사, 찬양대원, 각 전도회원, 양육부원, 교회직원, 청년·대학부 임직원과 조장, 차량관리부원 기타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평신도 중 훈련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전체 모임의 강사는 첫째날 첫번째

시간에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둘째 시간과 둘째날 두 시간은 이진영 목사(인천제2교회 담임목사)가 하게 된다.

한편 예년에는 각 위원회별 일꾼 훈련을 동시에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위원회의 특성에 맞추어 각 위원회별로 계획을 세워 일꾼들을 훈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자체 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훈련을 하게 된다.

각 교구에서는 교회일꾼 전원이 청지기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날 (1월 29일, 수요일)

6:00-6:50 식사 및 교제 시간
7:00-8:00 강의(1)(당회장 김창인 목사)
8:00-8:10 휴식 및 교제
8:10-9:00 강의(2)(이진영 목사)
9:00-9:10 기도회(인도 장정철 목사)

· 둘째날 (1월 30일, 목요일)

6:00-6:50 식사 및 교제 시간
7:00-8:00 강의(3)(이진영 목사)

8:00-8:10 휴식 및 교제
8:10-9:00 강의(4)(이진영 목사)
9:00-9:10 기도회(인도 김동석 목사)

청지기훈련에 따른 교사 훈련

1월 14일(화) 오후 7시 갈릴리홀

교육위원회에서는 '97 청지기훈련에 따른 교사훈련을 오는 1월 14일(화) 오후 7시에 갈릴리홀에서 실시하게 된다.

첫째 시간은 강신의 목사의 '교회음 악의 위기', 둘째 시간은 교육위원회 지도인 이종대 목사가 '성경적인 성경공부 및 성경해석', 셋째 시간에는 교육위원장 정하우 장로와 서기인 사동석 장로의 '1997년 교육위원회 운영방침 및 행정실무'에 대하여 강의할 계획이다.

전 교사들이 참여하여 내실있는 교

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각 위원회의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예배위원회 / 1월 26일(주일) 오후 3시 본당
- 찬양위원회 / 1월 26일(주일)
- 교육위원회 / 1월 14일(화) 오후 7시 갈릴리홀
- 전도위원회 / 1월 12일(주일) 오후 3시 교육관407호
1월 19일(주일) 오후 3시 교육관407호
- 선교위원회 / 1월 23일(목) 충현기도원
- 봉사위원회 / 3월 1일(토) 차량관리부 봄 정기수련회
- 교구위원회 / 1월 22일(수)

제1차 학습, 세례식

2월 16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거행

2월 2일, 9일(주일)에 교육 및 문답

금년 들어 첫번째 학습, 세례식이 오는 2월 16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1997년부터 학습, 세례식 일정이 다소 바뀐데 따라 학습, 세례자는 물론 주위에서 권하는 교구일꾼 및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은 학습, 세례식을 금요일 저녁에 갈릴리홀에서 실시하고 이를 위한 문답과 교육을 목요일에 실시했으나 금년부터 학습, 세례식은 주일 저녁찬양예배 시간에 김창인 목사의 집례하에 실시하여 본인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및 문답은 2주

전부터 2주간에 걸쳐 주일 오후 3시~4시50분까지 실시하게 되며, 좀 더 내실있는 교육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확인표를 문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도에는 네 차례(2월 16일, 5월 18일, 8월 17일, 11월 16일) 학습,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이에 참여할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2월 16일 학습, 세례식에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1월 26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교회 당회실에서 신년을 시작하는 시무예배가 김창인 목사와 교역자, 교회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설교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시 126:5, 6)라는 말씀을 통해서 금년도 모든 열매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어진 열매 충성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리고 지면 29면 11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축복하였다. 예배가 끝난 뒤 서로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였다.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이국병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 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현장민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현장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찬곤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신년예배 설교 ●

영육간에 복을 받는 성도

(시편 22:26)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면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죄악에 때 묻는 지혜와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죄악에 때묻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못되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못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은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땅위의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죄악에 때 묻은 복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기한이 길지 못하고 근심이 겹쳐서 들어옵니다. 충현교회의 성도들은 죄악에 때묻지 아니한 성공자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면류관상 받을 때까지 계속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까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복을 주시는 분

사람들 중에는 내가 힘세면 내 힘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전혀 틀리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참된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라는 말은 그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님 것일세" 부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다 복을 받습니니다.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니다. 우리가 마음 그릇만 준비하면 흔들어서 채워 주시습니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든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 그릇 준비하면 얼마든지 주시고 마음 그릇에 구멍만 뚫어지지 아니하면 그 복을 누립니니다. 우리가 마음 그릇 준비를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준비한 그릇에 구멍이 뚫려서 다 쏟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

(1) 먹고 배부르는 복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먹고 배부르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위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별세하시는 날이 슬프고 남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슬프지요. 그러나 땅위의 모든 슬픔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히는 슬픔은 굶어 죽는 슬픔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도 배고프면 밥 숟가락이 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굶는 슬픔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동포들에게서 들려오는, 못 먹고 굶주렸다는 말은 너

무 슬프습니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국민소득이 30,000\$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선교할 때에 복음과 함께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고 싶고,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 그때에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30,000\$쯤은 되어야 이 민족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 가져서 주지 않고 남의 것 빼앗아 주려고 하면 이름은 좋을는지 몰라도 편안은 있을 수 없습니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한 후 화폐가치가 10분의 1도 못되는 동독의 돈을 똑같이 취급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기 원한다면 욕심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휴전선 무너지면 내 재산 삼분의 일은 내 놓겠습니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일이라도 우리 나라가 하나 되리라고 믿습니니다. 놀다 얻어 먹는 거지가 많아지고 놀다 도적질 하는 못된 인간이 많아지면 하나되어 봐야 다른 나라에게 또 먹힐까 봐 겁이 납니니다. 하나님 앞에 먹고 배부르는 복을 이복에 있는 내 동포도 다 받기를 원합니다.

(2)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복입니다

육신만 먹고 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모임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결심의 주먹을 불끈 쥐고 발걸음이 선하고 옳은 길 걷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천국이 꽃피고 열매 맺고 우리 나라에 성령의 열매가 넘쳐 세계에 복음을 전해 주는 나라가 되기를 높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찬송 부르는 복입니다

사람의 입에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인지가 중요습니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 주시는 노래, 매리가 듣고 도망가는 노래,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은혜 받는 노래, 아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예수 믿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찬도가 되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 속에 산다는 말은 너무너무 귀한 말이며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받아 여러분의 입에서는 탄식이 없어지고 찬송부르고, 저주가 없어지고 축복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도망가고 가정에 천국이 꽃피는 줄을 믿습니니다.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부르다가 세상 떠난 후에는 황금 길을 걸으면서 황금 비파 꼭꼭 맞춰 기쁜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고생 끝에 본 뜻 잊어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먹고 배부르고 성령 충만하여 찬송 부르고 값이 있는 생으로 살다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 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는 찬송,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 없고 저주 없고 탄식 없고 찬송이 꼭 차서 찬송이 언제라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생명의 복입니다

하루 살면 하루 산 만큼 선한 일을 하는 값이 있는 성공자의 열매를 맺는 생명, 병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육신의 생명, 죄악에 때묻지 아니하는 값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 생명을 가지고 값이 있게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 부르면서 길이 영생복락 누릴 때에 면류관 받아 쓰는 충현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3. 이런 복을 받을 자

(1)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노래 잘 부른다고 교만하고 돈 몇 푼 있다고 교만하고 권세 조금 당당하다고 교만하면 이 복 못 받습니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습니니다.

그러면 교만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 겸손한 자는 감사하고 교만한 자는 원망습니니다.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그릇이 점점 좁아지고 구멍이 뚫립니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마음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커지고 구멍 뚫어지지 않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겸손한 자는 부지런하고 교만한 자는 게으릅니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시면서 게으른 자에게 단호하십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책임에 충실한 사람이 됩니니다. 권리는 쓰고 책임은 안하면 도적놈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입에 찬송 부르게 하시고 값이 있는 생명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셋째, 겸손한 자는 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화목하는 사람

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화목에서 옵니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 신자끼리 화목한 신자가 모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를 받습니니다. 그러나 교만쟁이는 싸움만 일으키고 화목을 못하습니니다. 자기 잘못은 숨겨놓고 남의 잘못만 들추기 때문에 좁스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니다.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2)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날 때에 남편, 아내를 찾는 것도 좋으나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고 일어나는 자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찾고 일어나는 자는 근심을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편안할 때에 사람 찾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사람 찾아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의논하고 하나님을 찾아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매 맞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죄 값으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버리면 영혼까지 지옥 갑니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숨 쉴 때 되도록 찬송부르면서 세상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습니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부자이신 하나님을 마음 그릇만 준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복을 주습니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먹고 배부르고 성령 충만하여 찬송 부르고 값이 있는 생으로 살다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 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슬렘들이 변화될 것이고 후에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최미영
(대학부 회원)

우 상이 가득했던 이 나라에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이토록 부흥 성장케 하셔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국외로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국내로는 기도운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 부흥케 하셨듯이 세계 곳곳으로 열방과 족속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 땅의 주인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위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은 바로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가며 집중적으로 한 곳에 기도를 쏟아 붓기 원하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중헌교회 식구들에게도 소개드리려 합니다. '모슬렘(Moslem)을 위한 30일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슬렘이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하듯이 알라를 믿는 회교도, 이슬람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모슬렘들에겐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5가지 강령(첫째 신앙고백, 둘째 기도, 셋째 금식, 넷째 금식, 다섯째 성지순례 - 일생에 한번 메카 방문)이 있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을 지키다 해도 알라를 위한 순교를 제외하고는 구원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 중 넷째 강령인 금식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키는데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으로 매년 9월에 시작하여 3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경전인 코란을 낭독하면서 수양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들은 흑백의 구별이 가능한 낮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이때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은 기독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의 분열과 타락, 가족들의 질병에 관하여 선포하고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면서 찬양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대결해서 함께 저주하고 십자군 전쟁 때처럼 기독교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모슬렘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헛것을 바라보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대적해야 합

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시 2:8)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운동에 참여

5년 전부터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중보하며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금식하며 역(逆)으로 기도하는 역라마단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입니다.

R. A. 토레이가 "설교없는 부흥은 있었지만 기도없는 부흥은 없었다"고 한 것만 봐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시 2:8)

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선교사가 전혀 없는 곳의 모슬렘들까지도 품고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중보하며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금식하며 역(逆)으로 기도하는 역라마단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입니다. R. A. 토레이가 "설교없는 부흥은 있었지만 기도없는 부흥은 없었다"고 한 것만 봐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주님께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기도와 참여를 위해 라마단 기간 중 구체적으로 기도할 사항을 제시할 기도안내 책자를 구입하시거나 선교위원회에서 받으셔서 특별히 기도하시고픈 날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끼 혹은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신다면 훨씬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대학부가 주축이 되어 참여한 이 운동은 교회마다 단체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했는데, 그 중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교류가 없던 청년부와 대학부의 젊은이들이 연합하며 동역하게 되었고 함

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운동을 맡고 있는 선교단체와 협력하게 되었고 또 선교단체와 단체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과 선교사로 파송받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역라마단 기도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월 30-31일에 왕성교회에서 선교협의회 주최로 '97 선교 이슬람'이 있습니다. 주제는 '나의 형제 이스마엘'이고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입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모임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헌교회 내 연합중보 기도모임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선교관 지하 2층 매주라기홀

*서울·경기 지역 연합중보 기도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신일교회 본당(3호선 약수역 하차)

*'97 선교 이슬람
주최: 이슬람권 선교협의회
주제: 나의 형제 이스마엘

주강사: Chawkat Moucary 박사
(영국ANCC 이슬람선교학 교수)

장소: 왕성교회(신림역 하차 1번 출구 국민은행 방향 도보)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슬렘들이 변화될 것이고 후에 반드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일정과 기도제목〉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화해를 향한 걸음	11 시리아 인구 1500만 모슬렘 90.5%
12 중동을 위한 사역자들	13 인도-베트남· 마카르족, 코르탈로족	14 서유럽	15 우즈베키스탄	16 구(舊)유고슬 라비아	17 아랍에미레이 트공화국 인구 210만	18 이스탄불 인구 1천만 모슬렘 99.8%
19 베트남 모슬렘	20 여성난민들	21 서부 사하라	22 알바니아	23 술탄, 왕, 지도자	24 중국-취족	25 헌신된 삶의 능력
26 중앙아시아	27 인도-카쉬미르의 시아파	28 브루나이 다루살람	29 어린 아이들	30 아프리카를 위한 일꾼들	31 호주의 모슬렘	1 세네갈
2 인도-올라하 족	3 잠보앙가	4 분쟁의 땅 남 아시아	5 권능의 밤	6 아시아를 위한 일꾼들	7 회심자들	8 아라비아의 배두인

토막소식

▶ 선교위원회에서는 오는 1월 26일(주일) 선교주일을 맞아 찬양예배시에 특별찬양을 하게 됨에 따라 오늘, 19일, 26일 오후 3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찬양 연습을 한다. 선교 실행위원 및 선교연구원 1~6기생 수료자는 모두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 각종 성경과 신앙 서적, 설교 및 찬양테이프 등을 판매하고 있는 테이프보급소에서는 성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점 시간을 조정했다.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30분이고, 수요일에는 2부 예배 후 30분까지, 금요일에는 금요일집회 10분 전까지 판매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에 있었던 메시아 찬양 카세트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를 통신 판매한다. 비디오테이프는 개당 5천원으로 우송료는 보통이 6백원, 동기가 천5백원이며, 카세트테이프는 개당 천원이고 우송료는 보통이 3백원,

동기가 천2백원이다. 동기로 신청해야 우송 중 분실되어도 찾을 수 있다(국민은행 754-24-0000-287 김순남, 우체국 013086-0060203 김순남).

97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

도서장학회에서는 1997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 1997. 1. 12(주일) - 31(금)
2. 신청장소 : 교육국(교육관 103호)
3.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에 재적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신학원생
4. 구비서류 : 교육국에 비치된 양식
5. 장학서류는 본인이 직접 소속부장과 교구 교역자의 확인을 받아 장학회에 제출할 것

중·고등부 선교수련회

중·고등부 선교수련회가 오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현 기도원에서 실시된다. 2천년대 선교를 담당해나갈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그에 대한 신앙 성숙과 준비를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고등부 이국병 목사, 선교위원회 이승림 목사, 유치부 한영준 전도사가 담당한다.

회계 실무교육

1월 19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07호

재정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교회 각 부서 및 지회의 회계 실무 교육을 오는 1월 19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한다.

해당 부서장은 담당 회계를 꼭 참석토록 적극 협력하여서 바르고 정확한 회계 업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바뀐 새가족부를 소개합니다

등록 후 4주 이상 새가족부 교육받아야

매주 오전 10시30분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교회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새가족부는 새가족에게 집중적인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한 후에 교회에 잘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양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시키며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새가족이 충현교회에 등록하여 기존 교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새가족부 등록실(본당 오른쪽 옆)에 오시면 따뜻한 영접을 받고, 등록절차를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각종 자료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등록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새가족들이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봉사를 통한 교회부흥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째, 등록한 후에 반드시 4주 이상 새가족부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이 충현교회의 전통이나 영적인 분위기, 교회 행정과 각종 부서를 알지 못하면 이곳 저곳에서 부딪히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형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가족부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새가족부 교육에 참여하시면 교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을 수 있고, 좋은 성도를 사귄 수 있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4주 이상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어떤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나 교회의 문턱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들이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우리 교회에서는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편의와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 타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4주 적응반 교육이 있고, 초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독교 교리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6개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얻은 경험은 타교회 직분자들의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고 체계적인 신앙관을 세우기 위해서 6개월 교육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충현교회의 근본 뿌리와 영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여 6개월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를 권합니다.

넷째, 새가족부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 새가족부 교역자의 입적심방을 받게 됩니다. 입적심방은 새가족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돕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입적심방을 받지 않으면 충현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교적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적번호를 받지 못하면 교구의 심방이나 기타 모든 교인의 특권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가 났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충현동산을 이용할 수 없고, 결혼식이나 모든 예식에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분자 임명이나 충현교인이라는 각종 서류를 땔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가족부 4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교역자의 입적심방을 받고 교적번호를 꼭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교적번호를 받은 후에는 정식 충현교회 교인이 되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각 교구와 구역에 편성되어 신앙의 유익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구역에 편성되면 교구 교역자의 따뜻한 사랑과 심방을 받을 수 있고, 구역장이 새가족들을 돕고 섬겨줄 것입니다.

여섯째, 새가족부에서 실시하는 4주 교육이나 6개월 교육을 받은 후에는 수료식 과정을 거쳐 연령에 따라 교회학교에 편성되어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습을 받지 않은 새가족은 6개월 교육을 받은 후에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97년에는 새가족 교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행정체계가 강화되었음을 인식하시고, 새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도해 주시며, 새가족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생활은 예신부에서 시작하십시오

늘 신선하고 새로운 분위기가 창출되는 곳

예비 신랑·신부들이 모여 결혼과 가정에 관한 것을 배워

매주 오전 11시 교육관 208호에서 모여

금년들어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파문을 일으키는 부서가 있다. 늘 모일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고 생기있고 역동감이 있는 부서로 피교육자가 어른이면서도 마치 어린아이같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인 부서—곧 예신부(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 지도 장우천 목사)이다.

예신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혼 시작부터 잘 깨닫게 하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개설한 교회학교이다.

예신부는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가 대상이다. 특히 본 교회 교우로서 결혼예정인 사람은 반드시 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교회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는 경우는 사무국에 결혼신청서를 받을 때 예신부 등록신청을 같이 받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8주를 한 학기로 하여 매월 홀수달에 새 강좌를 시작한다. 매주 오전 11시에 교육관 208호실에서 모여 1교시는 각분야 전문 강사의 강의, 2교시는 그룹으로 모여 성경에 나오는 부부에 관한 인물공부를 교사(부부)와 함께 하고 있다.

주 별	강의 제목	강 사
1	성경적 결혼관	장우천 목사(예신부 지도)
2	부부의 심리 및 성격	박중학 집사(정신과 전문의)
3	혼수 준비와 가정 경제	장세기 집사(성신여대 교수)
4	가정법률 상식	신선길 집사(변호사)
5	가정의학 상식	손 철 장로(산부인과 전문의)
6	부부 대화	채규만 집사(성신여대 교수)
7	배우자 가족과의 바른 관계	이경현 권사(예신부 부감)
8	바람직한 성생활	채규만 집사(성신여대 교수)

수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생각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결혼·가정·부부란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 앞으로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결혼생활이 기대됩니다.
- 성경적 결혼관, 가정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줄을 몰랐습니다. 예신부 목사님과 교사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결혼하여 생활할 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